

다산포럼

임성진



“우리는 지금 3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은 지난 두 차례의 산업혁명 때와 같이 새로운 기술과 에너지의 이용에 의해 추진될 것이다. 이 혁명은 우리의 사회시스템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지난 2007년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바로소(José Barroso) 위원장의 발언 내용이다. 지금 선진국에서 일고 있는 급격한 녹색변화를 보며 여기에 이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의 발언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 우선 인류가 새로운 형태의 산업사회를 향한 혁명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아울러 이번 혁명은 과거의 개발과 성장에 대한 개념을 통째로 바꾸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혁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맞이할 3차 산업혁명이 단순히 에너지와 기술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인류는 이미 18세기와 19세기 두 차례에 걸쳐 산업혁명을 경험했다. 1차 혁명은 석탄의 이용과 증기기관 기술의 발명으로 시작되었고, 2차 산업혁명은 석유자원의

개발과 전기, 화학기술의 발달에 근간을 두었다. 그렇다면 바로소가 언급한 3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와 기술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신산업사회를 이룰 에너지 원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에너지 효율과 절약에 중점을 두고, 중심 기술로는 ICT, 마이크로전자, 신소재, 재생가능원자재, 정정기술, 바이오기술 등을 꼽는다.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효율과 절약에 에너지원으로 취급할 데 대해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에너지절약과 효율을 공급한다는 네가와트(NEGAWatt)개념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높은 단계로 발전하여 있다. 앞선 두 차례의 산업혁명에서 보았듯 신기술과 에너지의 이용은 그와 관련된 사회체제를 새롭게 형성한다. 석탄과 증기기관에 의한 1차 혁명이 산업과 시장의 확대, 부르주아사회와 자유무역, 그리고 입헌국체제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리고 20세기의 대량생산과 소비경제, 그리고

이를 이해하려면 3차 산업혁명은 기후 변화로 인한 심각한 환경위기의 해결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는 지구온난화 문제, 1, 2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었던 석탄과 석유가 이제는 더 이상 사회발전을 유지시켜줄 에너지원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줄여주는 중요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에너지효율의 향상과 절약이다. 따라서 에너지효율과 절약의 확대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줄여주는 새로운 대체에너지

의 대규모이용과 관련 기술이 가져온 결과물이며, 이러한 대규모 산업사회구조는 석유자원의 이용량을 급격하게 증가시켜왔다. 이렇듯 에너지와 산업체제, 정치, 그리고 사회체제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의 복합체를 이루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성장률이 15~30%에 이르렀고, 그중 태양광이 매년 50~60%씩의 설비용량 증가율을 기록할 만큼 3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너지원은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런데 이러한 빠른 발전은 새로운 에너지원이나 기술의 개발에만 의존한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그와 동시에 미래형 사회체제가 가져온 성과이다. 3차 산업혁명은 절약과 효율형 녹색사회체제로의 전환이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제시한 이후 새로운 기술과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것은 수단일 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녹색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3차 산업혁명과 녹색사회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박행순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114만5천 명을 넘어섰다.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인과 사업가들, 그리고 국제 결혼을 통하여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 가정의 이민여성들을 포함하면 120만 명이 넘는다. 또한 외국인과 결혼한 수많은 한국어성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단일민족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Land of morning calm)'가 아니라 글로벌 시대를 사는 세계속의 한국임을 실감한다. 최근에 몽골 유학생으로부터 배운 아름다운 관습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힐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학생들에게 노트도 빌려주고, 도울 일 없는지 물어 보고 챙겨주는 그런 우리의 젊은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작년에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국제 과학문화 교류센터(이하 교류센터)'라는 이름으로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국제적으로 과학기술과 문화를 통하여 활동하고, 국내에 있는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을 도우려고 한다. 또한 이들 이웃으로부터 삶의 지혜와 좋은 문화는 배우서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써 아름다운 공존을 이끌어 내는데 일조하고 싶다.

유학생과 결연 맺기

우리는 남의 발을 밟고서 모른 척하는 양태족도 있으나, 보통 "미안합니다" 또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다. 그때 "네, 괜찮아요."라는 대답을 듣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이고, 대개는 무시하거나 상을 찌푸려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몽골에서는 발을 밟은 쪽이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함으로써 고의가 아니었음을 밝히고, 그리고 밝힌 쪽은 그 손을 잡아줌으로써 사과를 받아준다고 한다. 이렇듯, 팔, 애완검,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 몽골어학생이 한국인의 발을 밟고서 습관적으로 악수를 청했다는 손을 잡아주지 않아서 무척 당황했다고 말했다.

교류센터에서는 유학생들과 한국인 가정을 잇는 결연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결연가정은 한 달에 한번쯤, 그리고 명절에 이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또한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최근 서울에서 어떤 외국인 학원 강사로부터 한국에서 외국인인 '6등 시민'이라는 말을 들었다. 한국남자아름, 아들, 여자아름, 딸, 애완검, 그리고 외국인 여섯 번째 시민이란.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학원 강사들이 임금을 못 받거나 상습적으로 체불당하여 원한을 품고 우리나라를 떠난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가 이렇듯 외국인들의 발을 밟고도 사과하지 않는 양태 짓을 많이 한다. 그들이 내미는 손을 잡아주지도 않는다. 이제라도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악수를 청하는 심정으로 유학생 결연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권한다. <(사)국제과학문화교류센터장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농민 멍들게 하는 중간 상인 장삿속 '쓰쓸'

얼마전에 시장에서 국내산 꽃감 1상자를 구입했다. 그런데 내가 꽃감을 산 곳은 다른 가게보다 값은 약간 비싼 듯했으나 품질이 좋아 보였고 '특'이라는 상품표시와 큰 상점이었기에 믿고 샀다. 그리고 꽃감 박스에는 생산자인 농민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까지 적혀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열어보니 상자 밑바닥에 스티로폼과 박스 종이 한쪽이 반으로 찢어져 깔려 있고 그 위에 꽃감이 담겨져 있었다.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무게도 약간 부족했다. 정말 농민이 이렇게 팔았을 거라고는 생

각이 안들었지만 혹시나 싶어 연락을 해봤더니 농민도 무척 속상해 하면서 벌써 3번째 이런 전화를 받는다고 울먹이셨다. 꽃감이 농민의 손을 떠나 한두 번 시장을 거치면서 누군가 중간 상인에 의해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했다. 농민께서는 즉시 꽃감을 다시 보내주신다며 주소와 연락처를 물어보셨다. 하지만, 사정 얘기를 듣고보니 꽃감 생산자인 농민께 다시 받을 일은 아닌 듯 해서 그냥 무시라고 말씀드렸다. 농민들 가슴에 멍울을 만드는 이런 장삿속은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란다. ▲민경화·광주시 광산구 신정동

기고

전주언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다. 하지만, 비효율로 묶여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보완없이 무턱대고 서비스만 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는 그 종류만 해도 100가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선 현장의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심각한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취약계층 위주의

록 통합 운영되지 않고 공급자 위주로 잘게 쪼개져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디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시스템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청과 동 주민센터로 이원화돼 있던 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129지원팀, 희망복지팀, 감동복지팀, 행복복지팀, 드림 스타 팀 등 모두 다섯 개 팀으로 구성했다. 우선 129 지원팀은 '129' 긴급 전화를 통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각종

복지서비스 맞춤형 업그레이드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전 국민적인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 왔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이 더 넓고 촘촘하게 깔리게 됐고 복지서비스 종류 역시 다양해졌다. 그러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막대하게 소외되고 있는 복지비용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위주로 각종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서민·중산층이 일명 '신 빈곤층'이라 불리는 위기계층으로 추락하면서 예방적 차원보다는 사후약방문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에 따라 서구는 광주 5개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신설하고 지난달 27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해마다 복지제도나 예산은 급증하는데 반해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서비스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존 시스템은 각종 복지서비스가 수요자 입장에서 이용하기 쉽

복지상담은 물론 긴급 지원과 복지대상자 조정 및 배분,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민·관 협력사업 그리고 자원봉사 및 이웃돕기, 사회복지기금 운영 등을 담당한다. 복지대상자 조사 관리를 비롯한 생계급여의 조정·생성·변경, 급여종지, 생점사태와 생활보장위원회 및 동 복지위원회 관리 등은 희망·감동·행복복지팀이 맡고 있다. 드림 스타팀은 지역 내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임신부 및 0~12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 복지, 교육을 통합한 전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 스타사업 전달 추진팀이다. 소나기 내리듯 마구잡이로 던져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임시방편에 그칠 따름이다.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체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품과 용기를 전해줄 우리 구 희망복지지원단이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둬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구청장>

휴대전화 SOS 서비스, 발신자 위치까지 표시돼야

최근에 천인공노할 살인마 강호순의 예에서 보듯 강력 흉악범죄가 빈번한 상황에서 위급상황 시 휴대폰을 이용한 구조요청 기능은 필수 중 필수라 하겠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에 SOS메시지를 보내도록 설정해 놓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우 미리 입력해놓은 지정번호로 구조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SOS메시지 수신자는 발신자가 위험하다는 상환을 "저는 위험합니다. 구해주세요"라는 상환의 간결한 메시지로만 알뿐, 그의 위치는 알 수 없다는 결정적 단점이 있

다. 발신자가 위험할 경우 그를 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보가 그의 위치인데 구조요청 신호를 받은 후 119로 이동전화위치 정보요청 신호를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따라서 앞으로 발신자를 보내고서 SOS 메시지가 발송될 때에는 지정되어 있는 수신자에게 발신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했으면 한다. 그래야만 오작동으로 인한 잘못된 구조요청을 구별할 수 있고, 영등한 신고와 행정적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주은·광주시 서구 마죽동

시설

4월 임시국회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다

4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열린다. 28조9천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심의해야 하고 각종 민생 입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등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기류는 심상치 않다. 여야는 추경예산안을 둘러싼 기싸움을 벌이고 있고, '박연차 사건' 수사 외 4·29 재·보선에 정권이 팔려 국회 운영이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다.

이번 국회는 작년 12월 및 올 2월 국회처럼 파행을 거듭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 상황이 국회 시간을 마냥 허비해도 좋을 만큼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4월 국회는 추경의 용도와 재원 조달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지는 등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생산적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준병 기획재정부 장관도 30일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극복의 선두국가가 되느냐는 추경예산 집행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이다. '실질적 배수'가

40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혼돈이 막혀 공장문을 닫아야 하는 중소기업인과 일자리를 잃고 생계 걱정을 하는 서민을 생각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시간을 다루어 추경을 처리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

'박연차 수사'나 4월 재·보선 선거가 임시국회의 결말들이 돼서는 안 된다. 물론 각 당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이들 현안이 민생과 경제 살리기보다 우선 순위일 수는 없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집중해야 할 일은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지난 2월에 처리 못 한 각종 민생 관련 법안 심의와 처리다.

경제살리기에 가장 비협조적이고 서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국회 의원들이라는 국민의 비난을 정치권은 새겨 들어야 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생은 뒷전으로 물리고 정쟁이 벌어져야 할 것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든 경제·민생은 뒷전으로 물리고 정쟁이 벌어져야 할 것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든 경제·민생은 뒷전으로 물리고 정쟁이 벌어져야 할 것이다.

명분없는 인천 해양대 설립 즉각 중단해야

최근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국제도시나 영종도에 국립 해양대 신설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의 목포 해양대와 부산 해양대 이외에 인천에 또 하나의 해양대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6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새 해양대를 짓겠다는 얘기가. 해양교육을 받기 위해 지방으로 가야 하는 수도권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게 인천시의 설립이다. 하지만 인천시의 해양대 신설 추진은 아무런 생각도 명분이 없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우선 정부의 대학 통·폐합 정책에 정면배치된다. 정부는 학생 감소에 따라 국립대학의 정원을 줄이고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그런 마당에 오히려 비슷한 성격의 국립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번만이 아니다. 새 국립 해양대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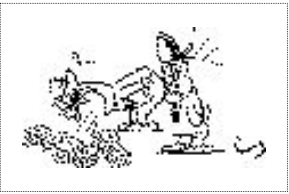
설은 기존 해양대의 위상을 떨어뜨릴 소지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선호로 지방대학은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송도 신항 건설로 국제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인천에 해양관련 전문 인력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해양대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해양대의 정원을 늘리면 된다. 대신 새 해양대 설립에 소요되는 6천억 원은 기존 해양대학에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해기사를 양성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지금의 불황이 지속될 경우 해기사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 해기사 수급을 위해서도 해양대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인천시는 명분 없는 해양대 신설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 역시 지방대를 고사시키는 새 해양대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뇌물(賂物)의 역사는 매우 길다. 한자 '뇌(賂)는 돈을 뜻하는 조개 패(貝)에 각기 각(各)을 결합해 만든 글자. 문자 그대로 하면 '개별적으로 유통되는 돈' 즉,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적으로 주고받는 재물이란 의미가 된다. 따라서 뇌물은 조개를 화폐로 썼던 시대부터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연방법원 판사였던 존 누난이 1984년에 쓴 '뇌물의 역사'란 책에는 기원전 15세기 고대 이집트 시대 때부터 뇌물은 사회의 골칫거리였다는 얘기가 들어 있다. 이렇듯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뇌물은 얼굴을 보고 주고 받는 원시적인 수법에서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다.

뇌물의 진화



최근 중국에는 춘절(설) 같은 명절과 함께 정부 고관을 초청해 경품추첨에서 합법적으로 가장 큰 상품이 걸린 경품이 고관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뇌물이 등장했다. 청(淸) 때에는 매우 지적(?) 뇌물 수수 방법이 유행했다. 베이징의 고관

에게 무엇인가 바쳐야 할 사람은 골동품과 고서화가 집결하는 유리창(琉璃廠) 점포에 들러 주인에게 상납 대상자와 액수를 말한다. 주인은 손님에게서 돈을 받고 그가 지목한 고관의 집을 찾아 고관에게 합당한 골동품이나 서화를 사들인다. 주인은 손님에게 뇌물 알선료 격인 웃돈을 받고 고관집의 골동품을 전한다. 손님은 그 물건들을 들고 본 주인인 고관에게 찾아가 바친다. 고관은 제 물건값으로 현금을 받아왔던 후 다시 물건을 되돌려받고, 점포 주인도 거간료를 손에 넣었고, 손님도 아무 탈없이 상납했으니 3자 모두 목적 달성이다. 최근 '박연차리포트'수사에서 보듯 '해의 창구'를 거치는 금품수수자 신종타에 정부 고관을 초청해 경품추첨에서 합법적으로 가장 큰 상품이 걸린 경품이 고관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뇌물이 등장했다. 청(淸) 때에는 매우 지적(?) 뇌물 수수 방법이 유행했다. 베이징의 고관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 許宰皓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 |
| 1952년 4월 20일 創刊 | |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인 | |
| 대표전화 2200-551 | |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 www.kwangju.co.kr | www.kwangju.co.kr | www.kwangju.co.kr | www.kwangju.co.kr |
|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 사 회 2 부 2200-692 | 경 영 지 원 국 2200-511 | 문 화 회 보 국 2200-541 |
| 편 집 부 2200-672 | 문 화 회 보 부 2200-661 | 광 고 미 케 링 국 2200-521 |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
| 정 계 부 2200-634 | 어 려 면 제 부 2200-679 | 인 사 서 비 스 국 227-9500 | 인 사 서 비 스 국 227-9500 |
| 정 계 부 2200-641 | 체 육 팀 2200-663 | 다 자 인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 |
| 사 회 1 부 2200-612 | 사 진 부 2200-691 | 서 울 지 사 02-773-9331 | 서 울 지 사 02-773-9331 |
| 사 회 2 부 222-4267 | 조 사 부 2200-571 | 서 울 지 사 02-773-9331 | 서 울 지 사 02-773-9331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